



# 한관에 관한 개발 개구하고 두만강

## 한국 즉 구상

### III. 금후의 개발구상(계속)

#### 3. 훈춘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훈춘이 경제개발구로 지정된 것은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외에 주로 그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이며, 이러한 입지조건이 장차 훈춘을 중국과 환동해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창구 및 기지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훈춘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경제발전방식에 있어 조속히 수출가공과 무역중심의 외향형 경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첫째, 훈춘은 자원집약적 조방산업 위주의 기초 위에서 현지의 자원우세와 노동력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생산성을 발전시켜 경제를 고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시설의 건설과 투자환경 개선을 가속화

하여 외자와 해외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국내기업과의 연합을 중요시하여 제품의 가공도를 높여 제품의 수출능력과 국내시장의 경쟁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력을 신속히 증대시키는 동시에 흡수·소화능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생산기술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 '외인내연', 특히 국제경제순환에의 참여를 통해 전지역의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의 경제발전방식으로부터 최종적인 경제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기업의 기술개조와 생산전환 또는 기업의 신규건설은 모두 경제효율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중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제1차 산업의 개발은 반드시 식량생산을 소홀히 하

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다각경영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삼림복개율을 75%이하로 낮추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농·림·목·어업 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기지산업과 외화창출농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馬川子·板石·三家子·敬信·涼水 등지에 5개 식량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벼·옥수수·콩을 생산한다.

涼水·板石·春城·哈達門·英安 등지에 4개 과수단지를 건설하여 사과와 배를 중점 생산하고 1만무 규모의 3개 과수원을 조성한다.

敬信·板石·英安 등지에 3개 육우단지를 건설하여 2000년에 7만마리에 도달케 함으로써 우육를 주요 수출상품화 한다.

敬信郷 하류·호수·연못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수산품 생산단지를 건설함으로써 2000년 전시 어류 생산량을 100만근에 도달토록 한다.

春城·英安·三家子·涼水 등지에 4개 채소생산 단지를 조성한다. 우선 涼水·春城·英安·三家子 채소단지를 개발하고 인구증가와 대외무역의 확대에 따라 哈達門·馬川子·板石 채소단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春化·馬滴達·密江 등지에 목재생산단지를 건설한다.

제2차 산업의 발전중점은 시장지향과 자원뒷받침의 전제하에 수출지향·경공업 위주·고가공을 원칙으로 하여 훈춘의 공업발전을 가속화한다.

우선 훈춘시구의 기초가 비교적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과학기술 역량이 비교적 강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등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토록 한다. 상품구조를 합리화하고 기업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선진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가공공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몇개의 광산자원개발기지를 건설한다. 涼水·英安·春城·三家子·楊泡·板石 등지에 석탄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총생산규모를 500만톤이상에 도달토록 하며, 春化·馬滴達에 금광기지를 건설하여 총생산규모를 5만t 이상에 달하도록 하고, 密江·涼水·英安등지에建材 기지를 설립하여 수출과 개발구 건설을 위한 자체수요에 충당토록 한다.

개발기지건설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광공업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석탄·전력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개발하고, 고령토·규토·석회석·화강암을 중심으로 건재공업을 발전시키며, 과일가공·육류·채소·양유·각종 주류를 중심으로 식품공업을 개발하고 펠프·제지·종이가공 공업을 발전시키며, 방직·염색·복장·신발·모피가공 및 기타 경공업을 중심으로 경방공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3차 산업은 무역과 개발구 수요에 부응하여 교통·통신발전에 중점을 두고 개발구와 연접하는 외부 및 시구의 소련·북한 하항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도로의 등급과 도로수송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통신능력을 강화하여 변경하항과의 통신을 원활히 하고 국내주요도시와 자동전화 및 세계주요도시와의 장거리전화·전신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 4. 훈춘경제개발구의 총체규획 구도

총체적인 구도는 철도·간선도로·훈춘하 및 주요 변경 하항을 발전축으로 하고 이 발전축의 중심도시에 의존하여 경제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점으로 축을 이끌고 축으로 면을 이끌며 전면발전’하는 건설구도를 형성토록 한다.

##### 가. 축선 건설 구도

훈춘도로, 건설중에 있는 도훈철도, 건설예정인 훈춘~長嶺子간 철도 및 도로, 훈춘~防川간 도로는 1급 발전축이 된다. 이 축은 내지에 의존하는 주요 통로로서 소련·북한과 인접한, 장차 동북아로 진입하여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이고 에너지·비금속광물·농업의 풍부한 집산지이며, 인구와 도시가 밀집해있고, 농공업생산기반이 양호하여 개발전망이 무한한 바, 이 발전축을 통해 석탄·건축재료·식품 등의 공업을 발전시켜, 자원가공형태의 구역을 조성한다.

훈춘~春化도로와 훈춘에는 2급 발전축이 된다. 이 축의 동남은 소련과 접하고 북은 흑룡강성과 통하여 1급 발전축과 훈춘시구에서 교차하며, 삼림·금광·농목자원이 풍부하다. 이 발전축을 통해 임산물·유색금속·식품 등의 공업을 발전시켜 또 하나의 자원가공형태의 구역을 조성한다.

이상 두 개의 발전축을 따라 총체적인 골격을 마련해 간다면 대소·대북한 개방과 대내적인 자원개발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경제발전단위의 건설 구도

자원의 분포와 경제분구의 원칙에 의해 시전체를 4 개의 경제개발단위로 구획할 수 있다.



##### 1) 서부 비금속광물 · 농업부산품자원

개발구 : 석탄 · 비금속광물 · 산림 · 토산품 및 농업부산물을 중점 개발하고 가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명산물을 생산하여 생산품의 시장 점유율과 수출율을 제고한다. 과일과 한약재 · 채소 · 잎담배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농업 · 공업 · 무역의 생산체계를 단계적으로 형성하여, 대북한 변경무역을 확대한다.

2) 중부 종합경제개발구 : 중심도시가 밀집되고 농공업기초가 양호하며, 교통이 편리하고 과학기술력이 비교적 강한 지역적 우세를 이용하여 수출가공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훈춘시구에는 수출가공구를 건설하여 '삼래일보' 와 '양두재외' 기업을 설립하고 기술집약형 산업의 비중을 높이며, 기초시설과 도시 건설을 가속화하여 양호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석탄 · 전력 등의 에너지기지 건설을 계속 강화하고 자원의 가공도를 높임으로써 자원우세를 경제우세로 신속히 전환시킨다. 곡물과 콩 · 과일 · 육류 · 계란 · 유제품원 기지를 건설하고 長嶺子 · 沙塔子 하항의 건설 기간을 단축한다.

3) 동부 금속광 · 임업 부산품 자원개발구 : 금 · 동광, 특산자원을 중점 개발한다. 春化縣 · 馬滴達鄉에 유색금속 선풍 · 제련생산기지와 임 · 특산품 생산가공 기지를 건설하고 자연초지를 충분히 이용하여 목축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分水嶺 하항을 개발하고 春化~分水嶺간 도로를 건설하여 대소 변경무역을 확장하며 馬滴達 · 春化 · 대소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龍口水 저수지와 도시기초 시설을 건설한다.

4) 남부 대외경제무역개발구 : 防川 일대의 지리적 우세를 활용하여 대소 · 북한 변경무역을 적극 발전시킨다. 防川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고, 훈춘~防川간 도로를 개설하며, 훈춘~防川의 도문강 하상 준설과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함으로써 다국간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다. 중점소구건설 구도

##### 1) 수출가공구 건설

대소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 교외의 신명촌에 3km<sup>2</sup> 규모의 수출가공공업구를 건설한다. 동 공업구는 훈춘시구에 인접하여 구시구의 기초시설 및 각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용지 확보

가 가능

하고 지세가

비교적 평坦하여

우량전의 접용을 극소화할

수 있다. 또한 훈춘하에

인접하여 수원 확보가 용이하고

용수공급이 충분하며 배수도 양호하다.

그리고 훈춘~長嶺子, 훈춘~防川간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또 훈춘하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 오염도 크지 않다.

동 공업구는 '삼자'기업을 위주로 하여 특구와 유사한 정책을 실시한다. 주로 수출 및 선진기술 항목에 중점을 둔 경가공업을 발전시키고 중점업종과 기간기업을 육성하여 점차 경제개발 위주에서 기술개발 위주로 전환해간다. 그리고 연해개발구의 표준화 모델에 따라 건설하여 강력한 유인력을 갖도록 한다. 개발업종은 소련 · 북한 · 일본 · 남한 등의 시장상황을 예측하여 금후 파혁제품 · 양유가공 · 축산품가공 · 메리야쓰 및 면제품 · 의류 · 과일 및 채소가공 · 공예품 · 플라스틱제품 · 금속제품 · 의약보건품 · 기계제작 · 화장품 · 방직품 · 완구 · 운동용품 · 문방구류 및 사무용품 · 건축재료 ·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 29종을 중점 발전시킨다. 또한 공해기업의 공업구 입주를 업격히 규제한다.

##### 2) 防川자유무역구

敬信향 防川촌에 1km<sup>2</sup> 넓이의 자유무역구를 설립한다. 이 지역은 중 · 소 · 북한 3국의 접경지대로 소련 · 북한측 도시와 가깝고 훈춘에서 防川까지 도로가 통하며, 바로 가까이 도문강이 흐르고 있어 용수공급이 충분하여 대소 · 북한, 3국 변경지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다. 자유무역구는 '변민호시 무역'(변경주민들 사이에 행해지는 상업거래)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항구·  
세관·창고·상가·주택·  
위탁시설 등을 건설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무역구가 되도록 한다.

### 3) 항구 건설

하항건설은 沙灘子 하항과 長嶺子 하항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동서하항군을 형성토록 한다.

1982년에 폐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圈河하항은 대북한 변경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다시 사용토록 한다.

分水嶺은 유서깊은 대소무역통로로서 소련과 중국 측 도로가 모두 변경에 근접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조속히 分水嶺 하항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涼水 防川하항도 개방해야 한다.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은 長嶺子 하항으로서 소련측과 기본적으로 보조를 같이 하되 중국측이 조금 더 빨리 한다는 원칙 하에 건설을 진행하도록 한다. 훈춘에서 長嶺子까지의 도로는 1990년에 이미 간이도로가 개설된 바, 계속해서 아스팔트 도로로 개조한다. 훈춘에서 沙灘子에 이르는 하항도로는 2년내에 2급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수송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4) 도시건설

도시건설은 경제개발구 건설의 제1차적인 과제이며 도시화수준의 향상은 경제개발구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1989년 현재 훈춘시는 2개 진, 10 향, 4개 가로 나뉘어 있으나 도시체계 등급수준은 낮은 편이며,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대체로 종합형·공광형·변경하항형·농부산품 집산가공형으로 대별된다. 1988년 도시 인구는 6만 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8%를 점해 도시화 수준은 높지 않다.

### 금세기 말까지

대외개발개방의 요구에 따라 훈춘을 대외경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전방위개방의 종합형 중급도시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도시건설의 중점지구가 되는 곳은 훈춘시구이다. 훈춘시구는 개발구의 가공공업 중심이며 상업무역·정치문화의 중심이므로 시구건설을 가속화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훈춘시구는 인구 30만명으로 계획한다. 1995년, 2000년의 시구인구는 각각 12만명과 18.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화수준은 각각 55%와 75%정도에 이르러 도시화 진전속도가 전반 5년간은 4.7%, 후반 5년간은 5.4%씩의 증가율을 나타내 전국 평균증가 속도에 접근할 것이다. 도시기능은 점차 공업·서비스업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시구에는 3개 중점소구가 들어서는데, 수출공업가공구, 내연공업구, 그리고 민족특성을 지닌 고려인가 등이 소구로 형성된다. 시구의 생산가공구·생활서비스구·상업무역구 및 도로·보도·광장·정류장 등은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적당한 규모로 하여 금후 30년 내지 50년의 발전수요에 적용토록 한다.

시구내에는 약간의 독립적인 특색을 갖춘 소구를 조성하여 이 지역은 중·소·남북한·일본 등 여리국가들의 풍격을 나타내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훈춘중심 시구를 건설하는 외에 위성도시의 건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0년까지는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 1개, 2~5명의 진(읍 규모) 2개, 1~2만 명의 진 5개, 1만명이하의 진과 향진 8개를 건설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涼水·春化를 2개 중심 진으로 건설하고, 기능별로는 板石·哈達門·八達城은 공광형 진, 防川은 무역형 진, 密江·敬信·三家子·馬川子·楊泡·馬滴達·英安은 농부산품 집산형 향

진으로 건설하여 점차 훈춘시와 중심진을 중심으로 하고 1·2급 발전축에 의존하며 상이한 등급 규모, 상이한 기능유형, 점·선·면이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짜여진 도시가로망 구도를 형성한다.

##### 5) 기초시설 건설

첫째, 도훈 철도건설을 가속화하여 조속히 개통토록 한다. 대소 무역규모의 확대를 위해 적당한 시기에 도훈철도를 長嶺子 하항과 防川 하항까지 연장하여 소련측 철도와 연결시킴으로써 대외무역의 수송수요에 대비한다.

둘째, 長嶺子 도로건설을 가속화하고 기존 도로의 향도로를 개수하여 도문~훈춘, 훈춘~春化, 훈춘~防川간 도로를 주요 간선도로로 하는 운수망을 형성 한다.

셋째, 국가관련부문에 적극 협력하여 도문강 항행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권하 또는 하천에 항구를 건설하여 우선 소형선박으로 도문강 상류에서 바다로 진입하는 연계수송과 연근해 항해에 국한하고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도문강 하상을 준설하여 원양운수를 실현시킨다.

항공운수에 있어서는 훈춘경제개발구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長春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항로를 개설하여 長春~延吉~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민간항로를 구축한다. 훈춘에서 延吉까지는 115km에 불과하여 훈춘의 민항은 우선 延吉공항에서 커버할 수 있어 수요에 따라 확장과 개수를 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통신시설의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여 기존통신시설을 개조하고 선진통신설비를 도입하여 국내 및 국제전화의 DDT화를 실현한다.

다섯째, 시구의 전력 및 열공급을 해결한다. 발전소의 제2기 건설은 훈춘시의 열공급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적당한 규모의 열발전소 건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5. 전략과 대책

##### 가. 훈춘경제발전 전략

훈춘경제개발구 설립 이후 훈춘시 당위원회와 시정부는 훈춘이 구비하고 있는 비교우위와 협존하는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훈춘경제개발구 건설에 대한 지도사상을 제시하였다. 훈춘경제발전 전략의

## 훈춘은 그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월한 지리적 여건으로 자체의 독특한 우세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 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방향을 담고있는 이 지도사상은 훈춘시에 대해 특유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유사한 개방실험구와 경제특구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대외무역을 선도로 하고 변경무역을 기점으로 하며, 자원에 의지하고 외항형 경제를 주체로 하여 무역·공업·농업·위탁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수출가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훈춘이 동북아를 연결하여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창구와 통로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략상으로는 경제개발구를 건설할 때 필히 외항형 특성에 입각하여 중점소구 건설을 위주로 하고, 기초건설을 위주로 하며, 경형가공업을 위주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동시에 '외인'(밖에서 끌어들임)과 '내연'(안에서 연합)을 결합시키고 수

출과 가공을 배합하고 노구와 신구를 조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나. 건설목표

장기적인 목표는 금후 15년 내지 20년의 노력을 통해 훈춘을 북방의 심천으로 건설하여 중국과 동북아지역 경제가 상호협력 발전하는 대외무역의 창구 및 가공기지로 하며 중국에서 일본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목표는 10여년간의 노력을 통해 훈춘을 기초시설이 완비되고 공업기초가 비교적 풍부하며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동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다. 또 대남북한 무역을 개척하고 대소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을 확대한다. 그리고 수출가공구로서의 대체적인 규모를 갖추어 훈춘을 滿洲里처럼 길림성 대외무역의 중요한 창구와 기지로 건설하는 것이다.

##### 다. 건설과정

훈춘경제개발구의 건설은 대체로 3단계, 즉 준비단계·착수단계·발전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이다.

1989년부터 약 2년간은 개발구 기본계획의 제정, 각종 우대정책과 관련법령·조례의 제정, 프로젝트 리스트 작성, 하항건설 등을 추진하고 이와함께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대외선전을 강화하여 훈춘의 성내외·국내외 지명도를 높여 '외인내연'을 위한 통로를 확장한다.

1990년부터는 대강 5~6년의 기간을 이용하여 이후의 대규모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시

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산업발전 계획을 작성 실시하며, 하항건설계획을 전면 실행하여 경제소구, 즉 수출 상품가공구와 자유무역구의 대체적인 건설을 마무리하고 기존기업의 개조와 '내요가공(위탁가공 생산), '내양가공'(견본에 의한 가공생산), '내건조장' (Knock down) 및 보상무역을 실행한다.

1995년부터 금세기말 또는 21세기 초까지는 이미 마련된 기초 위에서 전면적인 발전단계로 진입한다.

#### 라. 개발방식

첫째, 개발자금의 조달문제이다.

개발구의 기초시설 건설에는  $km^2$ 당 약 1억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만일 훈춘개발구의 제1단계 개발면적을  $3km^2$ 규모로 계획한다면 '5통1평'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은 3억원이 되며, 여기에 5년기간의 금리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길림성·연변자치주·훈춘시에게는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이 되며 훈춘자체의 재정형편으로는 이처럼 방대한 투자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훈춘경제개발구의 건설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자금은 다른 연해개방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대정책하에 외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가공형과 자원개발형을 결합하되 수출가공형을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수출가공기업의 설립과 수출가공기지의 건설은 훈춘경제기술개발구가 동북아 시장을 겨냥하는 데 필요한 것이며 훈춘경제개발구의 발전방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구의 농공업 생산구도를 계획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수출가공형을 근간으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대소·대북한 무역의 수요와 발전전망에 입각하여 목재를 원료로하는 목재 세공기업과 규석을 원재료로하는 야금제품기업, 금을 원재료로하는 금세공기업, 모피와 텁을 원재료로하는 의류기업, 육류와 어류를 원료로하는 식품가공기업, 인삼·토산품 및 한약재를 원재료로하는 음료 및 제약기업, 그리고 현재의 기계·전자산업을 기초로하여 경공업기업을 계획적으로 설립하는데 중점을 둔다.

수출가공형 기업의 설립은 훈춘경제개발구의 발전방향이며 자원개발형 기업의 설립은 훈춘경제개발구의 발전기초이다. 훈춘이 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개발잠재력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석탄과 수자원으로서 이 두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면 개발구 건설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산업은 국가경제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 분야이다.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석탄과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에너지문제를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한 일도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든가 외자를 도입하여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개발구가 앞으로 당면하게 될 에너지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프로젝트의 도입과 노후기업의 개조를 결합하되 노후기업개조를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지방공업의 발전은 훈춘의 자생적 기능을 증강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현재 훈춘지역의 공업기업은 137개로서 그 대부분이 설비가 낙후되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제품의 경쟁력이 취약한 소형기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구의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용하여 기술과 주요설비의 도입을 강화하고 외화획득을 목표로 상품의 품질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고급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집약산업과 기술집약산업을 결합하되 노동집약산업을 위주로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훈춘경제개발구 건설에는 대량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훈춘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나 노동력은 대단히 풍부하므로 노동집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금부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훈춘과 접경하는 소련경내,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구는 노동력이 극히 부족하여 노동집약산업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방·식품·가정용 전기기기와 기타 경공업 잡제품을 중심으로한 노동집약형 기업의 발전에 주력하며 소련산업과 구조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노동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업관리수준을 향상시키는데도 노력하고 노동집약형에서 점차적으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며 고기술산업을 발전시킬 것이 요구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훈춘은 그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월한 지리적 여건으로 자체의 독특한 우세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훈춘의 개발은 훈춘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연변자치주와 길림성에 다같이 중요한 현실적 의의와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